

가슴의 산책

안승렬

〈노인윤리원장〉

‘가슴’이란 낱말을 사전에 서는 목표에 맞고 안맞음을 헤아리는 표준겨냥 또는 사물의 되어가는 형편을 헤아려 엿보는 눈치라 하였다.

사회가 너무나 어지러워 목표의 표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글을 쓴다.

인생은 과거로 떠나 오늘에 있지 못하고, 현재를 떠나 앞을 가질 수 없다. 이는 흡사 뿌리를 떠나 줄기와 가지가 없으며 또한 잎사귀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가 비록 천만갈래로 무성하고 상상하다 하나 돌아가는 것은 한뿌리의 나무이니 인생의 유구함이 비록 천만년이나 그 돌아가는 바는 지금의 한낱 인생이다. 이런 까닭에 인생은 일체(一體)인 지라 “역사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만세의 스승인 공자(孔子)는 인생은 인간으로 승화되면서 역사성을 띤 동물이라 갈파하였다.

역사는 유구한 시공을 거쳐 인생생활을 종합하여 현재의 일정한 평면들에 둘러쌓여 내부의 원자배

열이 규칙적으로 모양을 갖추는 과정을 거쳐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떠나 어찌 삶을 이룰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우리의 말씀씨와 몸땀씨가 역사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음식과 옷

느 방향을 가릴 것 없어 역사로부터 받는 영향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컫는 역사는 고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씨 몸땀씨에 있으며 어느 상점 진열장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과 눈동자에 있다 하겠다.

바꾸어 쓰자면 역사는 책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자체의 움직임에 있다 하겠다. 우리의 생명은 자연섭리로 아득하면 조상으로 부터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거쳐 이어 받아 사회에서 삶을 갖고 독립된 인격체로 이어가니 역사의 활동이라 일컫게 되어있다.

역사는 실로 우리들 가슴속에서 숨결을 일으키는 커다란 생명체의 응어리라 하겠다.

표준을 바꾸면 역사는 우리의 선조가

생활을 이루어 간 경험을 밝힘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유산을 전하여 주어 문화를 이룩하게 하면서 혜택을 준 것을 생각하여야 겠다.

우리들은 가르침을 구하고 받았으며 이를 마땅히 공리하려니와



매무세, 주거공간이 역사에서 왔고, 제도과 풍습도 사회적인 역사로부터 왔다. 경제생활 역시 역사와 유기적인 연관이 있으며 예술, 과학, 도덕, 예절 등이 모두 역사와 연관이 있다.

우리의 현재생활을 살펴보면 어

또한 조상의 은공을 밝히고져 이를 연구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우리는 여러가지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중에서 유학(儒學)의 덕목을 지녀온 도를 알뜰히 가꾸어야겠음을 당부한다.

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공자는 인(仁)을 인류가 가장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문화적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맹자 역시 “인”은 사람이 편히 깃들일 수 있는 보금자리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인”은 인간대 인간의 사회성을 깨우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 포함된 이치이다.

“인”의 지상목적으로 으뜸가는 덕목이 바로 효성이다. 이것이 요즘 외래어로 많이 쓰여지는 휴머니즘의 상징이다. 유학의 제2인자인 맹자는 부모 육친을 친애하는 것이 “인”이라 했다.

논어 양화편 21장에 부모가 나를 낳아 3년을 키워준 정을 생각하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3년상을 지내는 것을 같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듯 인간이 애정, 특히 부모 자식간의 애착은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런 정이다.

따라서 효의 애정, 곧 육친애를 기점으로 이웃과의 사랑으로 확산하고 나아가서 치국평천하 하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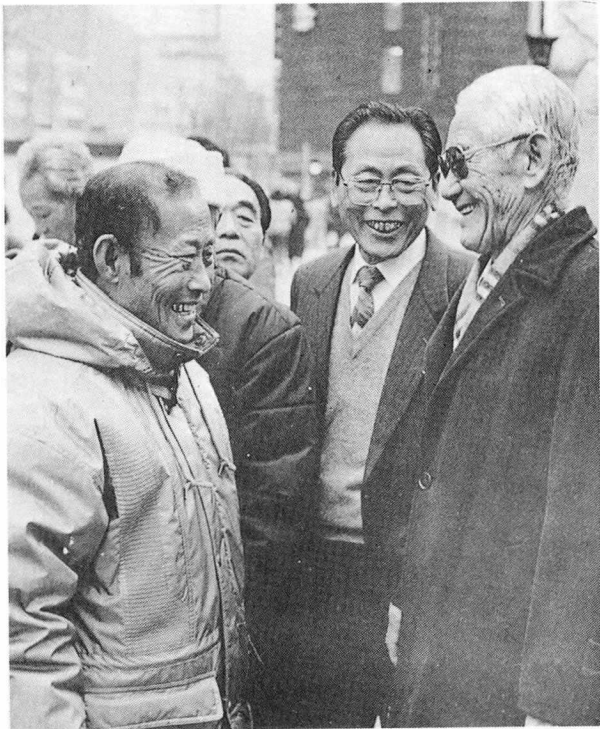
것이 동양의 “인”, 곧 휴머니즘 정신인 것이다.

육친애인 효를 중요시하지 않고 이웃과의 사랑부터 찾는 서양의 휴머니즘보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근원적인가를 인식해야할 것이다.

부모 자식간의 사랑이 종족이며 자연적 인간의 본성이라면 제(悌), 곧 형제간의 경애는 횡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의

인덕(仁德)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듯한 심오의 학식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다. 비근한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도”를 밟아나가면 그 결과는 바로 학문을 배운 사람의 경지와 같은 것이다.

BC 5백년에 체계화된 유학의 윤리를 시대적 생활환경이 다른 현대인들이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리는 시대의 변천과는 상관없이 고정불변할 것이므로 이것을 기틀로 새로운 시대적 생활철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젊은 직장인들의 슬기라 생각하며 몇가지 옮겨볼까 한다.

가정은 인륜의 도장이요, 근원이고, 인간복지의 바탕이라 하겠다.

덕목은 빈부나 사회적 지위, 직업의 종류, 교육과 지식의 수준,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도덕은

(義)가 된다.

이 두가지 애정만 있으면 종적인 세대전승이나 횡적인 사회생활에서 평화와 질서가 유지될 것이고 인류사회는 협동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러기에 효제(孝悌)는 “인”의 바탕인 것이다.

인간이 지녀야할 품성이며 예절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자기만의 특유한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연대생활로써 역사적으로 이미지는 문화권에서 통용되어야 하므로 예(禮)를 사회계약적 생활규범이라 한다. ㉞